

獨 노이에스 미술관의 역사 흔적...칸디다 회퍼 국제갤러리로 전시

November 28, 2011 | 이향휘 기자

page 1 of 1

<유네스코 문화유산>

獨 노이에스 미술관의 역사 흔적

2차대전때 손상, 70년간의 복원과정 사진에 기록

칸디다 회퍼 국제갤러리로 전시

노이에스(Neues) 미술관은 독일 베를린의 명물이다. 미술관 건물 자체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역사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물이라는 이야기다.

이 미술관에는 미라와 석판, 파피루스를 비롯한 고대 선사 유물이 많은데 특히 이집트 여왕이자 절세 미녀로 유명한 '네페르티티 흉상'을 보려고 관람객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이 미술관은 2009년 재개관하기 전까지 무려 70년 가까이 방치됐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베를린 폭격으로 미술관 외관이 심하게 손상됐고 복원과 관련해 적잖은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영국 스타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18년간 복원했고 오늘날 위용을 뽐내게 됐다.

이 미술관 복원 과정을 렌즈로 담은 사진 작가가 있다. 독일 출신인 세계적 여성 작가 칸디다 회퍼(Candida Hofer·67)다. 건축가 요청으로 복원 과정을 사진에 담은 '특권'을 누리 그는 그 결과물을 서울 소재 동 국제갤러리 신관에서 공개한다.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은 2005년과 200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시장에는 복원 전 노이에스 미술관 내부를 찍은 사진 작품이 12점 걸려 있다. '노이에스 미술관 시리즈'로 최근 프랑스 파리 삼업화랑에서 처음 공개됐고 이번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들이다. 평면 사진이지만 작품들은 모두 풍성한 깊이감을 선사한다.

마치 관람객들이 미술관 내부로 성큼성큼 걸어들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작품은 모두 자연스럽게 아늑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전시장 통과

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촬영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초기 선호했던 인공적인 조명을 철저히 배제했다.

관람객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은 8각형 돔으로 이뤄진 홀 모습을 차분하게 담은 사진이다. 그곳에는 기원전 1340년 고대 이집트 네페르티티 여왕 흉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이 흉상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전에는 서베를린에 있다가 통독 후 동베를린에 위치한 노이에스 미술관에 거처를 옮겼다. 동·서독 분단 상처를 보듬고 있는 상징적인 조각이 된 셈이다.

작가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진 찍히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다른 사람도 그런 이유로 사진에 잘 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도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은 없지만 공간에 남은 시간과 사람 흔적은 배어 있다.

작가는 "공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곳에 놓인 사물들로 인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러한 공간과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술관 중앙에 있는 고대 이집트여왕 네페르티티 흉상.

칸디다 회퍼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베른트 베허를 스승으로 본격적으로 사진에 입문했으며 세계적인 사진 거장인 안드레아스 구르스키와 토마스 스트루스, 토마스 루프와 함께 베허 학파 첫 세대다. 전시는 12월 25일까지. (02)735-8449 이향휘 기자